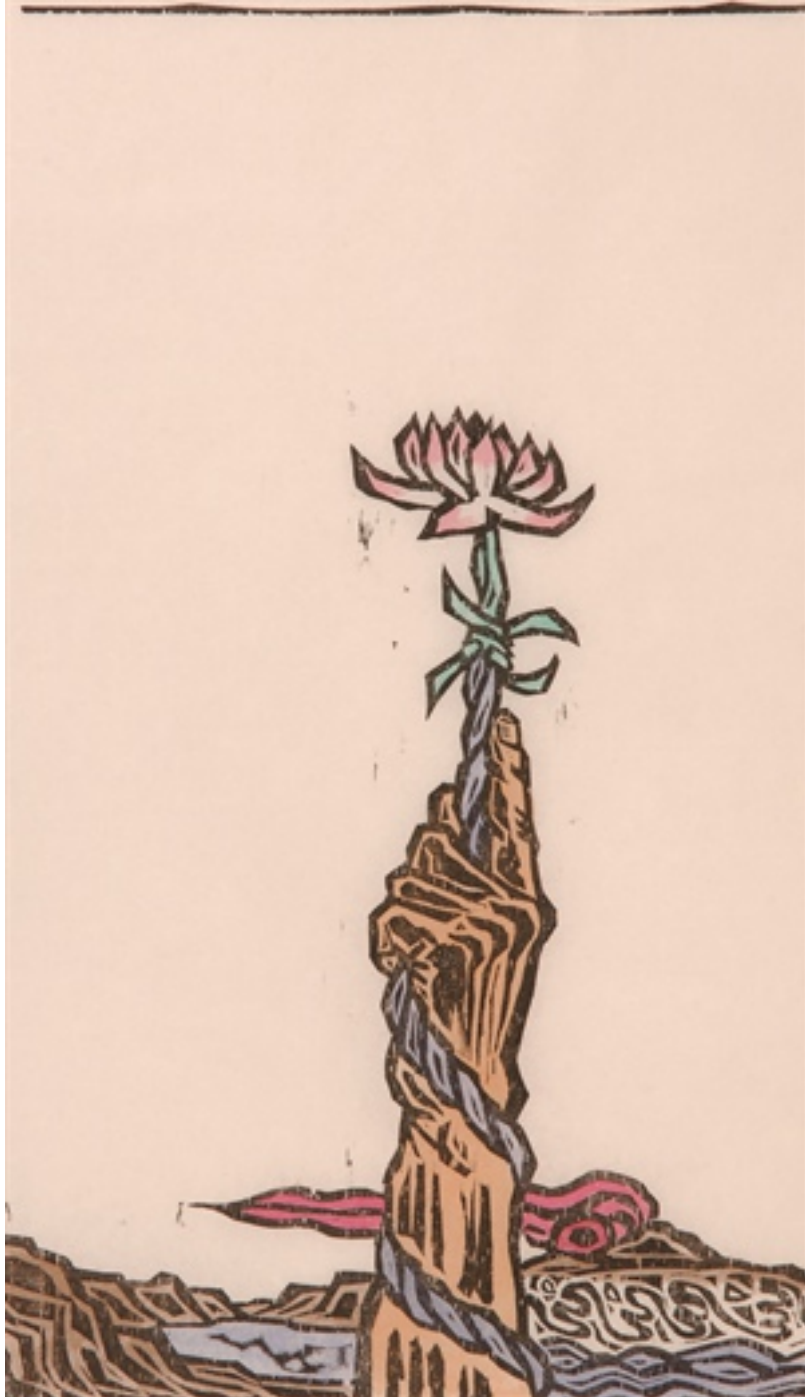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 민주공월



2020. 가을호

# 158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 민주공원

2020년 가을호 통권 158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문정수 | 편집인 김종기  
발행일 2020년 10월 7일 | 간별 계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증, 바00013  
표지 제호 신영복 | 편집장 김예선 | 디자인 중간 051-466-8994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송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 카카오톡에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검색하여 친구추가하세요.



## 펴내면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41년,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상이나 연행·구금당하는 등 여러 피해를 입었거나 부마민주항쟁의 진상 규명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를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왜 이제야 말을 하느냐’, ‘왜 그때는 말하지 못했느냐’고 물어야 할까요?

저항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팀”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적 폭력부터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폭력, 그 폭력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저항하는 자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또 저항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은 ‘자연된 정의’의 수행일 것입니다.

가을호에서는 유신정권이라는 국가적 폭력에 저항한 부마민주항쟁부터 ‘한국판 아우슈비츠 사건’이라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우리 일상 속 지역 차별과 여성 혐오 등 여러 폭력에 저항한 목소리들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또 전국 곳곳의 민주화운동 역사 현장을 다녀온 민주공원 자원활동가들의 탐방기도 펴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시민과 함께하게 된 민주공원 기획 행사의 모습도 소식지에 담아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의 건강을 바라며 가을호를 펴냅니다. 🇰🇷

## 목 차

- 04 **온누리햇살** 여전히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 \_김수정
- 08 **마루누리**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의 성과와 과제 \_홍순권
- 12 **부마민주항쟁 41주년 부산기념행사**
- 15 **6월민주항쟁 33주년 부산기념행사**
- 18 **온라인으로 만나는 민주공원**
- 21 **민주공원 자원활동가**
- 24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 관련 사진·만화·문서 및 영상물 전시
- 26 **잠든 사료 깨우기** 부산 지역 총선과 진보의 도전 : 두 번째, 1996 총선 \_김호민
- 30 **우리 안의 혐오와 차별**  
혐오와 차별의 가장 뿌리 깊은 역사에 대하여 - 여성혐오와 성차별을 말하다 \_변정희  
오랜 익숙함 속에서 자라난 N개의 차별 - 미디어의 경우 \_복성경
- 36 **소모임 이모저모**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한 스푼 - 버터스푼 \_김예선
- 38 **민주사랑방**
- 40 **민주알림방**



◀ 온라인으로 공개한 <2020 민주공원 예술놀이터>, Dance Project EGERO의 <사자WHO> 중 한 장면 촬영 박병민

# 여전히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

김수정 |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sup>1)</sup>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sup>2)</sup>은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다. 이렇게 필자가 말하는 연유에는 그동안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동안 피해생존자들은 「살아남은 아이」, 「숫자가 된 사람들」 등을 통해 피해의 잔혹한 상황을 구술을 통해 알렸고, 언론매체에서는 기획기사를 신기도 했으며, 여러 관련 주제를 연극으로 만들어 상연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부산지역의 인권단체들이 연대하여 함께 활동했으며 한국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조 등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답보상태인 이유는 사실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다시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이 시동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16일에 부산시장이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시민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다(동아일보, 2018.9.16.). 또한 현직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사고를 신청했다(경향신문, 2018.11.20.).

부산에서는 2019년 4월 10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본격적인 최초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고, 연구용역보고서가 2020년 5월 세상에 나왔다. 간발의 차이로 2020년 5월 20일에 정부의 배·보상 조항이 삭제된 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조선일보, 2020.5.20.). 이렇게 또 한 번 시동이 걸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전이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반쪽짜리 법이나마 만들어졌다는 데 만족해야 했다.

부산시는 용역보고서 발간 이후에 2020년 7월 1일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문제 등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히, 현재는 답보상태임을 알 수 있다.

부산시 차원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지상과 국가책임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작업이었다. 또한 피해자모임이나 형제복지원 대책위 등의 민간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그동안 피해내용이 밝혀진 적은 있지만 여전히 부분적이고, 소수의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만을 반복적으로 알게 되어 얼마만큼의 피해 규모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따라서 형제복지원의 수용생활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그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도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피해내용과 규모를 통해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로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삼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책임인 이유는 당시 근거기준이었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위법성에서 출발한다. 내무부 훈령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명확성 원칙 위반, 적법절차 위반, 영장주의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이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 훈령 제410호뿐 아니라 그전에 시행되었던 불법수용에 대한 국가의 방조부터 책임을 논할 수 있겠다. 사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고아와 부랑인이 많이 발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당시 정부는 이들을 통제적인 관점에서 다루었고, 형제복지원 및 그와 유사한 부랑인시설은 외원기관의 원조를 통해 유지하게 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정부는 이러한 부랑인 시설의 유지 차원에서 이를 묵인하면서 단속과 통제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외원기관의 대표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형제복지원에 방문, 환영식기념사진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에서 행사된 국가의 강제력은 보호의뢰된 수용자를 무연고자로 처리하여 강제수용은 물론, 귀가조치통보를 받은 수용자도 수용하고, 일반가정의 아동까지 강제로 납치하여 이름을 바꿔가면서 장기간 수용하는 사례까지 포함시켰다.



보호의뢰한 부랑아가 부랑인선도 탑차에서 내리는 모습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및 폭행을 수반한 행위들이 일삼았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의 심층면접에 참여했던 피해생존자에게서는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진술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과정에서는 축소수사와 수사내용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했는데, 이는 당시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했던 위원 중에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0여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시청이나 구청의행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부산일보, 2018.3.29.). 재판과정에서는 울주작업장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여 형제복지원 본원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무부훈령 제410호의 합법적인 정당한 법령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가혹행위와 의사에 반한 수용이라고 인정하는 등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두고 다른 법원의 판단은 지금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이상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과정별로 알아본 내용이다. 그렇다면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후는 어땠을까?

1987년 박인근 원장이 구속되었지만, 당시 부산시와 보사부, 내무부, 법무부 등 정권차원의 지속적인 외압, 은폐, 축소, 수습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 재육원, 옴의 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 느헤미야로의 4번의 법인명을 교체하며 시설을 운영하였고, 마침내 설립허가취소와 법인해산명령을 통해 형제복지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부산시의 비협조적인 태도(동아일보, 1987.2.13.)와 사태 수습에 급급하여 부산시와의 유착관계, 정권의 비호 등을 밝히지 못한 채, 미완의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보고서인 신민당 조사보고서다. 최초의 진실규명조사였다는 의의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두고두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형제복지원의 단체복을 입고 단체생활을 통해 교회 예배와 급식 및 배식받는 모습



▲ 사진 제공: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잔학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감독과 통제도 하지 않음으로써 묵인 내지 방조를 하였으며, 실체가 드러난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통하여 오히려 그 내용을 은폐 축소하였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를 원했고, 국가차원의 공식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외에도 일자리 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꼽았다. 이에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이 경제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자료아카이브구축과 그를 기초로 한 자료관의 설립과 운영도 제시되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운영 중에 있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생존자들은 만성화된 피해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트라우마의 문제로서, 심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신체건강, 대인관계의 질, 삶의 질, 사회의 인식 및 문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회복되고 악화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학제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책임사건이라고 해서 부산시가 면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부산시 역시도 빈곤문제를 겪고 있는 부산거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가장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는 피해자들에 관한 잘못된 과거 행정기록의 수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하니 사건의 진상 범위에서는 미처 파악할 수 없었던 타시설로 전원된 사람들을 포함시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산소재 형제복지원에 있던 수용인들이 인근지역 시설로 전원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므로 시설의 전원자를 파악하여 삶의 경로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한 지 1년 6개월만인 지난 4월 23일에 첫 심리가 열렸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왜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집단에 수용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한다. 이제는 피해생존자를 사건해결의 주제로 받아들여서 그들 개인의 경험을 뛰어넘어 사건을 객관화하여 후속세대에 인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

- 
- 1) 필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본문의 내용은 보고서의 입장에서 발췌·요약했음을 밝힌다.
  - 2)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부터 시작한 형제복지원이 당시 정부의 사회통제적인 부랑인정책에 편승하여 불법적인 수용과 감금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던 중 1975년 7월 부산시와 체결한 부랑인일시보호 위탁계약과 같은 해 12월 시행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하여 국가와 부산시의 직·간접적 개입을 배경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거리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강제 납치·수용하여 강제조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 각종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다 1987년 초 사건화하면서 일부 실상이 드러났으나 당시 권력층과 부산시의 외압으로 그 진상과 책임규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나아가 불법수용되어 인권침해를 당한 수용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을 말한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 발췌).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의 성과와 과제

홍순권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2013년 6월 4일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부마관련법으로 약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과거사 청산의 일환으로 그동안 부산 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부산과 마산의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부단히 전개해온 입법투쟁의 성과물이다.

부마관련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 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회합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동법 제4조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약칭)가 진상규명, 관련자 심의 결정, 장애등급 판정, 보상금 지급,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등 부마민주항쟁의 과거사 정리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진상규명의 중점 과제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과거 은폐되었던 사실을 밝혀내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토대로 부마민주항쟁의 성격과 그 역사적 의의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다. 특히 은폐되었거나 왜곡된 사실과 관련해서는 항쟁 당시 관련자를 연행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행위를 찾아내고, 진압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밝혀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현재 2021년 6월까지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2021년 12월까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 위원회의 조사 활동과 보고서 잠정안의 채택

위원회는 2014년 10월 조사 활동의 첫발을 떼었다. 그러나 이후 조사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판단은 위원회의 진상보고서 작성의 법적 만료 기한을 50일 앞둔 2018년 2월 23일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결과 보고회에 제출된 발표자료(진상조사보고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부마민주항쟁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총 153명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진상조사보고안의 서술 방식 등에서도 적잖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조사 및 수집 자료의 부실로 인해 제대로 된 보고서 작성이 어려웠던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의 진술서, 관계기관의 공적 문서 등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자료 조사 외에도 항쟁 참여자의 신고와 이들에 대한 면담조사가 필요한데, 관련법에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구금 30일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



부마민주항쟁 당시 가두 시위. 촬영 부산일보 사진기자 정광삼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 포고문을 읽고 있는 시민들. 촬영 국제신문 사진기자 김탁돈

인지 신고인 접수가 매우 저조하였던 것이다. 신고인이 적고 공적 자료의 수집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만큼 진상규명 작업도 한계에 부딪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2016년 5월 29일 제1차 법개정에서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보상금의 지급 규정만을 일부 개정하고 30일 이상 구금 보상 제한 조건은 개정되지 않은 채 종전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8년 12월 24일 제2차 개정에서도 조사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었으나, 조사 활동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기관의 협조 의무가 강조되었을 뿐, 관련자 보상 등 쟁점 사안의 근본적인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개정 이후 항쟁 참여자의 추가 신청과 면담 조사, 그리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추가적 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종전의 진상조사보고서안을 대폭 수정하고 추가적인 자료 분석을 진행한 결과 2020년 6월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 잠정안을 확정할 수 있었다.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항쟁 기간 중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검거된 인원이 총 1,563명 이상임을 확인하고 신청자 중 247명(2020.1.31. 현재)을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이 수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 나. 항쟁 당시 부산의 계엄령 선포와 마산의 위수령 발동과 관련하여 군부대 동원과 진압 방식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진행 과정과 명령체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위법성을 확인하였다.
- 다. 시위 관련자 연행 또는 이들의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사례를 밝혀냈다.
- 라. 항쟁 당시 공안당국에 의한 시위 배후 세력 조작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양서협동조합 관련자 배후 조작, 남민전 사건과의 연계 조작, 사제총 보도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마. 유치준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고 유치준 씨를 관련자로 심의 결정하였다.

### 향후의 조사 활동 및 보고서 최종안의 작성 계획

2017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유관기관의 협조가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져 자료의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다. 이로 인해 군 보안사 등의 정보 보고와 군경 및 검찰의 수사기록 등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는 다수의 공적 자료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진상규명에 필요한 일부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참고인의 진술 거부로 조사가 미진했던 사건들도 있다. 그러던 차에 지난 2020년 5월 제3차 부마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결과로 조사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참고인 등 조사대상자가 진술 불응 시 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위원회가 관련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진술 거부해왔던 군·경측 인사들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해졌고, 항쟁 참여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문헌 자료 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될 경우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들을 관련자로 공식 의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위원회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유치준 사망 사건은 사망 경위와 부마민주항쟁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진상규명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사건 은폐를 지시한 지휘계통,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은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 거

부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항쟁 당시 진압에 참여했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했던 경찰관, 마산 소재 군 정보기관 관계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나. 아직 미궁 사건으로 남아 있는 계엄군 전차와 택시 간 사고도 추가 조사 대상이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확보한 군 기록에는 이 사건이 전차 이동 과정 중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있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 및 피해정도, 사고 후속처리 등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태이다. 장차 사고 전차 조종수 및 부대원(종합정비창) 신원이 확인되고, 나아가서 사고 택시 운전자 및 승객 등 신원 확인이 확보된다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목격자(사고 관련 방송 시청자 등)를 찾거나 방송자료를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 다. 고문 등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례가 밝혀졌으나, 추가적인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 연행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북한·남민전·야당 정치인과 연관성 또는 파출소 방화 등 사건 조작을 위한 고문 수사가 진행된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수사관 등 가해자 면담조사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라. 계엄사의 언론 통제 등도 또한 진상규명의 주요한 대상이다. 부마민주항쟁 전후 정부 또는 계엄당국의 언론 통제는 부마민주항쟁의 원인인면서 동시에 항쟁을 격화시킨 요인이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 통제 및 검열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엄 전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언론보도 실태 및 관련 당국의 통제 그리고 계엄 후 계엄사 보도처의 언론 통제 실상과 언론사(기자)의 대응 등을 살펴 볼 계획이다.
- 마. 부마민주항쟁의 타 지역 확산에 관한 것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마민주항쟁의 영향으로 부산·마산 외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 및 시위기도 등 항쟁의 확산 조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전체적인 규모와 양상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제3차 개정법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

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재정의하였다.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문헌 자료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확산과 영향 등 당시 정체 변화를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여러 문제들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압에 투입된 군 병력 이동 관련 문건, 진압에 투입된 부대별 작전 및 상황일지, 군법회의 재판기록, 즉결심판 기록 등 핵심 자료의 추가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10·26사건 기록 및 김재규 등 관련자 재판 기록 등도 포함된다. 부마민주항쟁의 결과로 발생한 10·26사건의 처리과정 등에 대한 분석은 동 사건과 부마민주항쟁 간의 관련성 및 부마민주항쟁이 이후 정국 변화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뿐 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과의 협조 또한 중요하다. 위원회는 이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조사 활동과 진상규명 작업에 더욱더 힘을 쏟을 계획이다. 🇸🇰

# 부마민주항쟁 41주년 부산기념행사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국가기념일 지정 두 번째 해,  
부산에서 열리는 첫 국가기념식.  
2020년 부산과 부마민주항쟁은  
여러 수식으로 연결되는 해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이 모이는  
큰 행사를 열기는 어렵지만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뜻만은 변함이 없다.

## 제29회 민주시민상 시상식

2020년 10월 15일(목) 오후 4시 | 민주공원 (중극장)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민주시민상이 어느덧 29회를 맞이했다. 제29회 민주시민상 시상식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인 10월 16일에 하루 앞선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 민주공원 큰방(중극장)에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모이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한다. 제29회 민주시민상 단체부문은 부산여성단체연합이 수상했으며 개인부문은 현대무용가 김평수 씨가 수상했다.

부산여성단체연합은 여성 폭력과 성차별에 맞서 지역의 여성운동을 견인해 온 연대단체로서, 지역 현안들에 대해 '여성의 목소리'로 함께한 지 올해 21년째이다. 특히 올해는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착취, 오거돈 성폭력사건 등 여성 폭력에 대한 대응 활동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 지역 수요 집회와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활동,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자 성매매 집결지인 부산 완월동의 공익 개발과 성매매 여성 구제를 위한 활동 등 여성 의제와 더불어 지역의 공익적 개발과 우리 역사 바로 잡기에도 헌신하고 있다.

부산여성단체연합 석영미 대표는 "부산여성단체연합의 수상은 민주주의가 성평등 가치에 화답하고 손을 내민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시민상 수상은 성평등 실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을 이어나가게 할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개인부문을 수상한 김평수 무용가는 세월호 참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한반도 평화 등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해 예술 활동을 통해 거리와 현장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활동, 부산청년예술위원회 결성을 통한 부산 문화 예술계 부흥을 위한 노력, 각종 공연 수익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단체부문 수상 부산여성단체연합 / 개인부문 수상 김평수

김평수 씨는 “사회적 문제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 아픔들과 함께하는 것이 제가 선배님들께 배운 예술이다. 예술이 있어야 할 자리, 예술이 함께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술가의 소명이라 생각한다. 저의 보잘것없는 몸짓이 희망의 씨앗이 되어 건강한 민주주의 새싹이 자랄 때까지, 그 새싹이 활짝 피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 문화예술로 향기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시청 앞에 주둔한 계엄군 전차\_촬영 부산일보 사진기자 정광삼

## 부마민주항쟁기념 부마 아카이브 사진전 개최

2020년 10월 20일(화) ~ 10월 31일(토) | 민주공원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

부마민주항쟁 41주년을 기념해 민주공원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함께 '1979 그날의 사진첩을 엮다'는 주제로 사진전을 연다. 31일(토)까지 민주공원 잡은펼쳐보임방에서, 광주 지역에서 11월 3일(화)부터 30일(월)까지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전시할 예정이다. 섹션1은 유신의 시대 : 겨울공화국, 섹션2는 부마민주항쟁 파노라마, 섹션3은 민주화운동의 물줄기, 섹션4는 부마민주항쟁이 걸어온 길로 파트를 나눠 소개한다.

##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개최

2020년 10월 16일(금) 오전 11시 | 부산대학교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10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다. 부산에서는 처음 열리는 국가기념식으로 국가 주요인사와 사회 각계 대표, 항쟁 관련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시 시월에 서서'라는 주제 아래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돌이켜보며 부마민주항쟁이 과거의 일이 아닌 오늘날의 일이자 오늘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자 한다. 🇰🇷

# 모두를 지키는 약속, 민주주의 이어달리기

– 6월민주항쟁 33주년 부산기념행사

한 세대의 기준을 30년이란 한다면, 1987년 당시의 청년들은 이제 중년이 되었고 2020년 지금의 청년들은 1987년 즈음 또는 그후에 태어났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 힘껏 뛰어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전달하고 나서도 끝나지 않는 이어달리기처럼,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의미를 담아 '모두를 지키는 약속, 민주주의 이어달리기'라는 주제로 6월민주항쟁 33주년 부산기념행사를 열었다.

6월민주항쟁 33주년 부산기념행사로 6월 10일 부산기념식과 6월 10일부터 2달여간 열린 기념전시 <2020 민중미술 오디세이>,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기념 학술심포지엄 <지금 여기 왜 민중미술인가?>를 열었다. 다양한 모습의 부산기념행사를 지면에 펼쳐 보인다.





▲ 6월민주항쟁 33주년 부산기념식  
▼ <나에게 민주주의란?> 챌린지 영상 중



▼ <지금 여기 왜 민중미술인가?> 종합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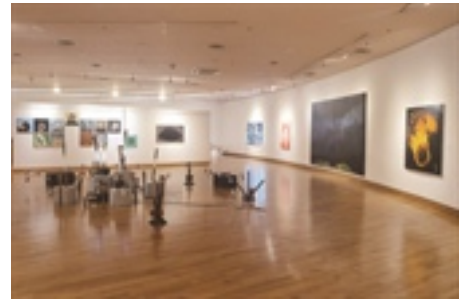
## 6월민주항쟁 33주년 부산기념식

6월 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민주공원 증극장에서 <6월민주항쟁 33주년 부산기념식>이 열렸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 <뒤편카노>를 통해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하여 기념식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기념식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기념식에서는 1987년 6월,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던 부산을 떠올릴 수 있는 공연과 민주열사들의 정신, 6월민주항쟁에 참여했던 당시 청년들의 정신이 2020년인 오늘에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6월 초부터 진행한 ‘나에게 민주주의란?’ 챌린지 영상 상영 등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민주항쟁을 기념·계승하는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보고자 했다. 6월민주항쟁 33주년 부산기념식 전체 영상과 하이라이트 영상, 나에게 민주주의란 영상 등은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지금 여기 왜 민중미술인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민주공원 증극장에서 열린 학술심포지엄 <지금 여기 왜 민중미술인가?>에서는 민중미술의 시대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정체성을 되물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예술 담론의 지평을 제기하고자 했다. 홍성담 작가가 ‘민중미술과 동아시아 평화 예술’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으며, 이나바 마이 광운대 교수, 최범 미술평론가, 강선학 미술평론가, 김준기 미술평론가, 김종길 미술평론가가 발표를 이어갔다. 김재환 경남도립미술관 학예사, 김희진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장현영, 이보리 큐레이터 등이 청년질문자로 참가하였다. 구본호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 ▲ <민중미술의 현장① / 노동미술 2020>
- ◀ <민중미술가열전 V / 박경효  
- 아제아제발랄아제 국뽕스바하>
- ▶ <민중미술의 현장② / 탈핵미술행동 2020  
- 고리 · 서생 핵발전소>
- ▶ <민중미술의 현장④ / 영호남현실주의예술가연대  
- 5.18을 산점직시하다>

## 2020 민중미술 오디세이

<2020 민중미술 오디세이>는 2013년부터 시작한 <민중미술전>의 연장으로, 한국 민중미술은 'MINJUNG-ART'라는 고유명사로 인정, 사용되고 있는 예술 장르인 만큼 민중미술의 정체성을 되물으며 새로운 미술담론의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올해는 총 6섹션으로 진행됐다.

<민중미술의 현장① / 노동미술 2020>, 6월 10일 ~ 28일, 민주공원

<민중미술가열전 V / 박경효 - 아제아제발랄아제 국뽕스바하>, 7월 4일 ~ 31일, 민주공원

<민중미술의 현장② / 탈핵미술행동 2020 - 고리 · 서생 핵발전소>, 7월 11일 ~ 25일,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민중미술의 현장③ / 또따또가 - 근면한 전시, 성실한 예술가>, 8월 1일 ~ 30일,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민중미술의 현장④ / 영호남현실주의예술가연대 - 5.18을 산점직시하다>, 8월 8일 ~ 30일, 민주공원

<로컬리티의 영상학 / 장윤비, 이강현>, 8월 1일 ~ 22일, 모퉁이극장 



민주주의 현장체험 - 찾아가는 민주공원 체험후기 사진 중



## 찾아가는 민주공원, 집에서 둘러보는 민주공원

초봄부터 유행한 코로나19, ‘가을쯤이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민주공원을 임시 휴관하고 <2020년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 취소, 민주항쟁기념관 전시해설 및 숲체험 등 대면 체험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했다. <5·18민주항쟁 40주년 부산기념식>은 유튜브 생중계라는 첫 시도로 열렸으며, 코로나19 대응 방침이 일상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6월민주항쟁 33주년 기념행사도 열고 민주공원 공연장상주단체의 공연과 민주공원 기획전시 등을 열었다.

하지만 3달여간의 시간이 무색하게 민주공원은 다시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포스트코로나’, 곧 코로나19 이후의 일상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위드코로나’,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인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지금, 민주공원은 민주정신을 기리고 민주시민교육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현장체험 - 찾아가는 민주공원, 체험학습지 온라인 배포**  
민주공원이 발간한 책 또는 제작한 체험학습지, 만들기 키트를 발송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

리 민주화운동사를 배우기도 하고 체험학습지를 민주공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이끼를 활용한 만들기 키트를 통해 생태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찾아가는 민주공원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여 회원,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고자 했다.

#### 〈민중미술의 현장④ 영호남현실주의예술가연대

##### — 5.18을 산점직시하다〉 온라인 전시

일상 속 거리두기 전환 후 6월민주항쟁 33주년 기념전시로 〈2020 민중미술 오디세이〉를 순차적으로 민주공원 잡은필처보임방(상설전시실)에서 열고 있었으나 부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8월 20일부터 민주공원은 임시휴관을 했고 8월 30일까지 전시예정이던 2020 민중미술 오디세이의 5번째 섹션 〈민중미술의 현장④ 영호남현실주의예술가연대 - 5.18을 산점직시하다〉를 온라인 전시로 전환했다. 전시 작품을 촬영하여 한 편의 동영상으로 만들었고,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에서 관람할 수 있다.

#### 민주공원 기획공연,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온라인 공연

공연을 취소하는 대신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시민과 예술이 만날 수 있도록 민주공원 기획공연과 공연장상주예술단체의 공연 실황을 녹화하여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공개하는 형식으로 공연을 진행했다. 2020 민주인권 우수작품 초청기획공연 극단 배우창고의 〈코빨소〉, 민주공원 공연장상주예술단체인 Dance Project EGERO가 주최하고 민주공원이 공동주관하는 제2회 레퍼토리 심폐소생술 [REFRESH] - 9월 초 3일간 3개 도시 9개 단체가 펼치는 춤 축제 - 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무관중으로 공연, 공연을 촬영하여 9월 중순 유튜브에 공개하였다. 극단 더블스테이지의 판소리극 〈굿 by 맥베스〉 역시 무관중 공연 실황을 10월 중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송출로 확정된 이후 민주공원 예술놀이터를 준비하며 Dance Project EGERO는 이전과는 다른 색다른 〈사자WHO〉를 촬영하여 민주공원 직원들마저 놀라게 했다는 후문.

#### 민주공원 랜선모꼬지 공원퀴즈왕

민주역사의 산 교육장이자 복합문화공간, 민주공원! 임시휴관이 장기화되며 민주공원에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 ‘랜

선모꼬지’ 곧,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TV 등의 매체를 통해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에 있는 〈민주공원 안내영상〉을 보고 민주공원으로 랜선 방문하고, 퀴즈를 풀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9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매일 퀴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첨을 통해 50명의 정답자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 권도 증정하고 있다.

#### 2020년 제14회 온라인 어린이평화큰잔치 다 함께 배워요

한반도와 지구촌 평화를 기원하며 어린이와 함께 평화를 느끼고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며 표현하는 축제인 어린이평화큰잔치.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민주공원과 부산어린이어깨동무, 포피스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총 8개의 프로그램과 2개의 공연을 준비했다. 각 프로그램 영상을 보며 함께 색칠하기, 조립하기, 활동지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여 발송했다.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과 제14회 어린이평화큰잔치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공개했다. 🎨



▲ 〈민중미술의 현장 ④ 영호남현실주의예술가연대 - 5.18을 산점직시하다〉 온라인 전시 영상 중  
▲ 민주공원 예술놀이터 온라인 공연 촬영 중



▼성동택\_기어에서 조물빛과 한나뭇을 느꼈다

- ▼강병준\_모두가 즐거운 생태공원
- ▼변대성\_평화로운 이 시간을 즐긴다



## 민주공원 작은사진전 작품 공모 나의 자연빛 세상

“생태민주주의를 느꼈던 당신의 자연빛세상은 언제인가요? 당신의 자연빛 세상과 자연빛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코로나19로 생태와 생명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요즘, 민주공원은 못 생명이 함께하는 세상, 생태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며 <작은 사진전 작품 공모 나의 자연빛 세상>을 열었다. 8월 15일부터 한 달간 174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총 70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민주공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열고 있다. 📺

▼김희찬\_자연은 나이 상관없이 다 좋아한다



# 민주공원 청년 자원활동가 민주역사 현장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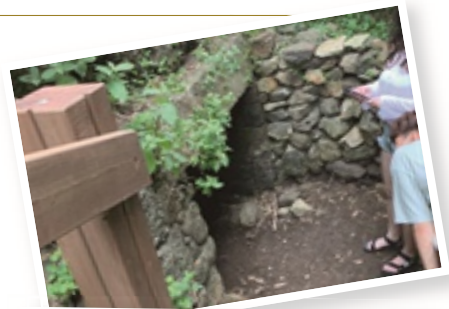
올해 민주공원은 자원활동가들에게 전국의 민주화 현장을 탐방하며 직접 체험하는 것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활동을 마련했다. 자원활동가들은 탐방 기간 동안 SNS에 탐방 소식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2박 3일의 일정을 마친 후 탐방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그중 일부를 소식지에 소개한다. 자원활동가들의 민주역사 현장 탐방은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소수 인원으로 진행했다.

## 기억해조 \_ 권혜정

**제주 탐방**

제주4·3평화공원, 너븐송이기념관, 광치기 해변, 셋알오름, 알뜨르 비행장 등

수학여행 포함 세 번째 제주도 여행이라 제주도를 간다는 것에 엄청 들떠 있었다. 일정을 계획할 때부터 4·3사건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고 찾아봐서 가슴 아픈 역사임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유적지를 보고, 기념관에서 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4·3사건이라는 주제를 정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렇지만 유적지와 기념관을 하나씩 둘러보고 4·3사건에 대해 좀 더 깊게 알게 되고 나서는 4·3사건을 주제로 정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 다음 제주도 여행에서도 내가 못 가봤던 다른 4·3사건 유적지를 가보고 싶다.



▲ 알뜨르비행장 지하벙커  
▲ 제주4·3평화공원  
▼ 우뚝개 동산

## 기억해조 \_ 양지은

### 광주 탐방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 전남대학교,  
광주역 광장, 국립5·18민주묘지 등

최근 영화 <택시운전사>와 <화려한 휴가>를 보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이하 5·18)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어서 광주로 탐방을 가기로 결정했다.  
탐방을 가기 전 5·18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5·18을 '폭동'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학생들도 정말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왜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는 얇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광주에서 탐방을 하는 동안  
깊고 바른 역사를 배우고 싶었다.  
제일 인상 깊은 날은 국립5·18민주묘지에 갔던 것인데,  
묘지와 무궁화가 시야에 꽉 찰 정도로 많았다.  
그 묘지 앞에는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도 있었고,  
사진이 없어서 무궁화 사진이 있기도 했다.  
묘지를 둘러보고 나가는 길에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우리가 경상도에서 왔다고 하니 경상도 사람들은 광주에 잘 안 오는데 시간 내서 와줘서 고맙다고 하셨다.  
지역 간 감정이 좋지 않고, 경상도 사람들은 5·18에 대해서 단순 폭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분들은 어떤 인식을 겪으셨기에 광주에 들르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시는지 안타까웠다.  
묘지에서 터미널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께서는 5·18을 직접 겪으셔서 친구를 잃었다고 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다.  
많은 사람의 희생과 아픔이 있는 광주 역사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는 5·18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  
조금만 걸어도 그날에 대한 비석, 사진, 벽화가 보였다.  
5·18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후세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고 싸운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5·18에 대한 인식이 더 나아져서  
광주의 아픔을 다독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5·18민주광장
- ▲ 옛 전남도청
- ▲ 국립5·18민주묘지

##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_주민혜

서울  
탐방

민주인권기념관, 전태일기념관,  
4·19국립묘지, 이한열기념관 등

한국근대사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 과정들을 담은 다양한 공간들을 방문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전태일기념관과 이한열기념관이었다.  
목인할 수 있었던 불편한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어 결국 청춘을 다 바친 이들의  
전시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나도 불의에 참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잘못된 것들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러한 다짐과 마음들이 전승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소중한 친구들과 우리가 직접 계획을 짜서  
서울이라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다행이었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여행이 된 것 같다. 🇰🇷



- ▲ 전태일기념관
- ▲ 이한열기념관
- ▲ 이한열기념관

▼ 2020 민주공원 자원활동가



#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 관련 사진·만화·문서 및 영상물 전시

노근리사건 70주년,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 경부선철도 및 쌍굴 일대에서 미 공군기와 미군의 무차별적 사격에 의해 수백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지난 50여 년의 세월 동안 유족들은 끈질긴 진실 규명 활동의 결과로 2004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노근리사건은 7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쟁과 국가적 폭력에 맞서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한다.

노근리사건 70주년을 맞아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 관련사진·만화·문서 및 영상물 전시>

를 영동예총과 노근리국제평화재단, 행정안전부가 함께 열며 6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 전시실에 이어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민주공원 작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열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주공원 임시휴관으로 전시는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다시 한 번 지면에 전시를 펼쳐보인다. 🐼





# 부산 지역의 총선과 진보의 도전: 두 번째, 1996년 총선

김호민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원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부산시지부 소식지 「진보통신」 제42호 표지

## 재난: 1992년 총선

1992년 총선은 두 정치집단에게 재난이었다. 첫 번째 집단은 지역주의와 결합한 보수정당 절대 우위의 지역 정치 상황에 직면한 영남의 개혁세력이었고 두 번째 집단은 보수·개혁 양당체제 속에서 자신의 기반이 극히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한 진보 세력이었다. 두 세력 중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집단은 후자, 즉 진보 세력이었다.

전자의 경우 어쨌거나 민주당이라는 전국정당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자신의 지역에서 갖는 취약한 기반을 중앙(서울)과 타 지역(호남)에서 민주당이 갖는 우세한 기반을 바탕으로 약간이나마 상쇄시킬 수 있었다. 즉 전국구(비례) 후보 배정을 통한 배려나 드물긴 했지만 수도권으로의 지역구 이전이라는 차선택책이 있었다.

반면 진보세력의 경우 전국 어디에서도 지역적 기반을 갖지 못했고 이는 지역주의가 날로 강화되는 당시 상황에서 치명적이었다. 이에 더해 선거제도 역시 진보정당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소선거구제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부재는 양당제를 촉진시켰다. 이에 더해 총선에서 2%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을 자동해산시키는 정당법 조항은 세계선거제도 역사 속에서도 최악의 사례들 중 하나였다.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 직후 도입된 해당 정당법 조항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받을 때까지 수많은 진보 정당들을 총선과 함께 해산시켰으며 이는 진보정당이 영속적인 체제를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 1992년 총선 후 부산의 상황

부산의 진보세력에게도 1992년 총선 결과는 한숨이 나오는 결과였다. 나름대로 진보 명망가들이 모여 만든 민중당의 후보로 나오건 최대 재야 단체인 전국연합 후보(무소속)로 나오건 간에 보수 정당 민자당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아니 당장 최대 야당인 민주당조차 민자당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다. 1988년 총선에서 당선됐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춘 노무현·김정길도 압도적인 표차로 낙선하는 상황이었다.

총선 이후 부산의 진보세력은 정치노선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봉착했다. 앞서 서술한 악질적인 정당법 조

향으로 인해 진보정당인 민중당은 해산되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민주당도 살아남기 어려운 지역의 정치구도에서 진보정당이 생존할 수 있을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을 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정치적 행로를 바꾸게 된다.

돌이켜 볼 때 1992년 총선은 6월항쟁 당시 연대했던 부산의 민주세력이 급격하게 분화된 계기이기도 했다. 6월항쟁 동안 부산의 제도야당(통일민주당), 재야, 학생운동가, 노동운동가들은 견고하게 결속하였고 이는 6월항쟁 자체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분당과 3당합당, 국민당의 창당, 진보세력의 독자정당 결성 등을 거치면서 급격한 분화가 진행되었다. 1992년 3월 4일, 부산YMCA가 주최한 정책토론회는 이를 잘 보여주었다. 주요 정당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4인의 후보들(민자당 문정수, 민주당 노무현, 국민당 김광일, 민중당 김영수)은 모두 5년 전 6월항쟁 당시 부산 국본에서 함께했던 이들이었다. 불과 5년 만에 연대했던 이들을 경쟁자로 만들 정도로 당시 부산의 정치변화는 급격했다.

### 진보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길 : 1992년 대선

1992년 총선에서 1.5% 득표율을 기록한 민중당은 결국 해산되었다. 사실 민중당의 총선 출마 후보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국연합 후보들의 득표율이 합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과반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민자당이나 개헌저지선에 근접한 민주당, 창당한 지 3개월도 안되었지만 31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킨 국민당에 비하면 존재감이 매우 약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민중당의 부진한 성적은 진보정당의 재건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1992년 총선 직후 진보정당 재건을 목표로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이하 진정추)가 조직되었지만 옛 민중당 구성원 전체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실망감에 더해 임박한 14대 대선국면은 진보정당 재건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렸고 새로운 논쟁이 더해졌다. 대선에서 진보세력이 독자적인 후보를 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진보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제도야당의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전자를 지지한 이들은 설령 진보 대통령후보가 패배하더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진보의 존재감을 높임으로서 성장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조직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박순보 선거운동 백서 중



진보 4개총선 필승고지를 향해 출발!!  
연제구 전역 싸이클 수회

민었다. 후자를 지지한 이들은 대선과정에서 제도야당과 견고한 협력을 구축한 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새롭게 구성될 정부 내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전자를 지지한 이들은 백기완을 진보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고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진정추, 사회주의정당추진위, 민중회의 등이 중심이 된 백기완 선거운동본부는 열띤 선거운동을 전개했으며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선거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보정당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후자를 지지한 이들은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와 손을 잡았다. 그들이 원했던 대로 전국연합과 김대중 후보의 민주당 사이에 정책협약이 체결되어 대선 승리 후에 진보적인 정책들을 시행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전

국연합의 지역 조직들과 가맹단체들은 김대중이 당선되었을 때 이뤄질 진보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92년 12월 18일 치러진 14대 대선은 모두의 기대를 배신했다. 백기완 후보의 득표율은 1%에 그쳤고 김대중 후보는 낙선했다. 대중적 진보정당의 결성으로 이어질 만큼의 득표도 없었고 진보적인 정책을 수행할 개혁적인 야권후보의 당선도 없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백기완 · 김대중 선본 간의 비방전으로 야기된 상처만이 남은 채 1992년 대선은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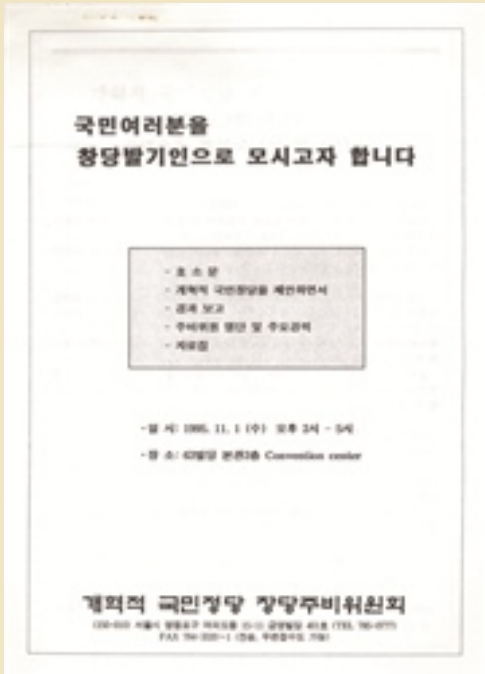
### 1992년 대선 후 부산의 상황

1992년 대선 종료 후 부산 지역 진보세력의 분위기는 서울 등 타 지역보다 더욱 암울했다. 백기완 후보의 부산 지역 득표율은 1.02%에 불과했고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도 12.52%에 그쳤다. 백기완 선본에 참여한 이들, 김대중 선본에 참여한 이들 모두에게 참담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진보정당 재건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부산지부(이하 진정추 부산지부)는 지부장인 김영수와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속에 활동을 지속하였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진정추 부산지부는 쌀시장 개방과 같은 전국적인 현안과 낙동강 오염문제와 같은 지역적인 현안에 논평을 내고 집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때로는 진보정치를

시민들에 알리기 위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부장인 김영수 또한 진정추가 결성될 당시 부대표를 맡는 등 진보정치 내에서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그 혼자서 부산의 진보정치의 활성화와 본인 지역구 관리까지 모두 맡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전통적인 재야운동은 차츰 약화되었다. 더 정확히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재야운동의 구성원들이 차츰 성장하는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옮겨간 것이지만 그 결과 재야운동과 최대 단체인 전국연합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차츰 하락했으며 이는 1992년 총선에서처럼 전국연합이 독자적으로 다수의 진보 후보를 내는 것이 차츰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했다.

1995년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부산에서 민자당이 갖는 절대적 우위를 여실히 보여준 선거였다. 문민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치러진 선거였고 부산시장에 야권의 최고카드인 노무현이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은 부산시장은 물론 16개 기초지자체장 중 무소속 2개를 제외한 14개를 쓸어 담았고 부산시의 회 선거의 경우 지역구 55석 중 무소속 6석을 제외한 49석을 쓸어 담았다. 민주당도 극심한 부진을 보이는 상황에서 진보후보의 경우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광역시의원 이상급에서는 출마 자체가 쉽지 않았다. 진정



개혁신당 국민정당 창당 발기인대회 홍보물

추 부산지부의 경우 부산시의회 선거에 1명(정윤식)을 출마시키는 데 그쳤으며 시민후보의 형태로 시민단체 출신 후보 2인(우주호, 박상도)이 구청장에 출마한 정도였다. 반면에 정당공천이 금지된 기초의원에서는 의외로 개혁진보 성향 후보들이 꽤 당선되었는데 사상구에서는 불과 25세의 민중정치연합 출신 진보 구의원(김권태)이 당선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는 뒤집어 보면 진보 후보가 아무리 능력과 매력을 갖춰도 민자당 후보와 경쟁하는 순간 당선이 극히 어려워진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 진보정당 없는 총선 : 1996년 총선

1995년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보자면 민자당의 패배였다. 이를 교훈 삼아 김영삼 정권은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재야인사를 포함한 외부인사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이때 민중당 창당을 주도한 재야의 명망가들이 대거 신한국당에 입당하였는데 이는 지지부진하던 진보정당 건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당시 독자적인 진보정당을 추진하던 조직으로 진보정치연합이 있었지만 민중당 출신 명망가 상당수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침침산중인 상황에서 일부 진보인사들은 당시 야권의 재편에 주목한다. 당시는 김대중의 정계복귀를 계기로 민주당이 분당되고 시민운동 차원의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정치개혁시민연합이 조직되는 등 야권발 정계개편이 이뤄지는 상황이었다. 즉 정치개혁시민연합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에 적극 참여하여 지지부진한 진보정당 창당의 대안으로 삼자는 것이었다. 당시 진보정치연합은 재정과 인력 모두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었고 결국 진보정치연합의 공동대표였던 노회찬 또한 정치개혁시민연합이 중심이된 개혁신당 창당에 적극 참여한다.


3김 정치 청산 등을 내세운 정치개혁시민연합은 부산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어서 부산의 주요 명망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등 열기가 상당했고 진보정치연합 부산지부의 대표인 김영수도 개혁신당 건설에 참여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혁신당은 김대중과 동교동계가 대거 탈당하여 당세가 약화된 민주당과 합당, 통합민주당을 창당한다. 이를 통해 진보정당을 대신한 민주당이라는 우회 출마로는 확보된 것처럼 보였다.

한편 전국연합 역시 1996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번 총선처럼 독자후보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그

러나 1992년 총선에 비해 독자출마를 위한 기반은 약화된 상황이었다. 총선에 출마할 만한 인사들은 문호를 크게 넓힌 여당과 야당에 들어가서 출마하는 것을 선호했고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개혁신당의 바람은 상대적으로 전국연합의 공간을 위축시켰다. 결국 전국연합 총선 후보는 공식적으로 4인에 그쳤으나 이른바 무소속 민주후보에 대한 전국연합 및 가맹단체 차원의 지원은 지속되었다.

### 더욱 뼈아픈 실패 : 부산 지역의 1996년 총선

1996년 4월 11일 15대 총선이 치러졌다. 그리고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진보후보들은 다시 한번 뼈아픈 실패를 겪었다. 부산의 실패는 더욱 뼈아팠는데 부산 지역 진보정치운동을 주도한 김영수의 경우는 민주당 내의 공천에서 밀려 출마 자체를 하지 못했다. 일종의 우회로로 선택한 개혁신당 · 민주당행이 오히려 출마 자체를 막아버리는 질곡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민중당 부산시당 시절부터 부산의 진보정치를 이끌어 왔던 김영수의 정치행로는 허무하게 끝났다. 전국연합 공식 후보로 부산진갑에 출마한 이성우 후보는 10.45%의 득표율을 올렸으나 순위는 4위였다. 과반 투표율을 기록한 신한국당 후보에 밀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같은 개별 야당들도 압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1992년 총선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출마한 전교조 부산지부장 출신의 박순보 후보는 상당히 선전해 25.71%의 득표율을 얻었다. 그러나 1위인 최형우 후보는 60.71%로 열세가 현격했고 14대 총선의 득표율 29%에 비해 득표율은 줄어들었다.

1996년의 부산 지역 총선 결과는 부산에서 진보 후보가 활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더욱 뼈아픈 점은 부산 지역에서 진보후보들이 활동할 만한 공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한 재야의 힘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소속 출마로는 당선이 불가능함이 분명해졌다. 진보 정당의 부재 상황에서 대안이었던 시민후보의 형태로서 보수야당(민주당)을 경유하는 방법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민주당 내부에서의 공천 경쟁은 결코 외부의 진보 후보에게 만만하지 않았다. 부산 지역 진보정치에 드리워진 겨울은 더욱 깊어갈 뿐인 가운데 어느덧 21세기가 도래하고 있었다. 21세기에는 좀 더 상황이 나아질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다룰 것이다. 

# 혐오와 차별의 가장 뿌리 깊은 역사에 대하여 - 여성혐오와 성차별을 말하다

변정희 |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임대표



엘시티 노동자 사망사건 기자회견 출처\_부산여성단체연합

“한 여자가 자기 삶에 대해서 진실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 무리엘 루카이저의 시는 ‘밤셀’<sup>1)</sup>과도 같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미투(me too) 운동에 꼭 들어맞는 말이었다. 미투 운동은 가장 성평등한 나라로 알려진 곳에서부터 가장 권력층에 가깝다고 믿었던 계층의 여성들까지 일상적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여성으로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투’의 한국어 게시글이 세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UN이 이미 1979년에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기본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직장과 학교에서 일상적 성희롱과 성차별을 겪으며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김지은 씨는, 서지현 검사는, 그 이전에 무수한 여성폭력의 증언자들은 이 차별과 폭력이 부디 ‘나’로 끝나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용기를 내 왔다. 그러나 이 거대한 일상의 폭력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광역단체장에 의한, 시의원에 의한 성추행 사건으로 도돌이표를 그럴 때마다, 역사의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믿었던 여성들은 다람쥐가 쳇바퀴에 갇힌 듯 제자리걸음을 하며 헛도는 기분이었다. 그나마 조금 나은 진전은 많은 이들이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고 말하기보다 진실로 궁금해 했다는 것이다. 대체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해야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글은 조금쯤은 그 질문과 고민에 대한 동조이자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여성혐오와 성차별이라는, 아주 오래된 습관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요.” 2016년 부산 지하철에 여성 전용칸이 들어서자 이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며 한 시민이 한 말이다. 하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이 ‘소수자’라거나 ‘약자’라고 하니 어쩐지 이상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속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도 같이 일상적이며 끈질기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 10대 청소년조차 가장 많은 수(25%)의 응답자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 문제로 ‘성차별’을 꼽을 정도다.<sup>2)</sup> 인권위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8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심각한 차별로 성차별(48.9%)을 꼽았다.

여성을 선천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보거나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유구한 가부장제도의 역사도 옛말이고, 여성의 성역할과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도 쌍팔년도 이야기라면 좋겠다. 얼마 전까지도 ‘역차별’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여성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도 점차 확장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성 혐오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까지 이어졌다. ‘된장녀’에서 ‘김치녀’, ‘김여사’, ‘맘충’까지 새로운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재생산되었다. 광고와 대중문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혐오가 만연했으며,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오갔던 성적 침해와 폭력은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n번방 성착취와 한국인이 운영하고 한국인이 최다 접속자였던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까지 그야말로 그 한계를 기늬하기 힘든 충격의 연속이었다.

### 놀이가 아닌 차별과 혐오, 유희과 접대가 아닌 폭력

캐슬린 배리가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를 가진 없진 타인의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화할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sup>3)</sup>이라고 한 말을 떠올리기



성차별, 성폭력  
항의 현수막 출처  
\_한국여성노동자회


전에, 시애틀의 성매매 생존자 단체에서 일하는 알리사 버나드가 “미투 운동에서 여성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성매매 여성에게는 일상적 경험이에요.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남성 폭력을 당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당해도 싸다는

식이예요”<sup>4)</sup>라고 한 말을 인용하기 전에 이미 일상적인 업무 환경에서도 여성을 외모와 몸매로 평가하는 성희롱을 가하고, 성추행과 성폭력을 행사하는 오래되고 만연한 문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2018년 노동자 4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해운대 ‘엘시티’ 사건을 기억하는가. 부산지방노동청 동부지청장은 1년 동안 40여 차례의 항응과 성접대를 받았으며, 노동자들이 사망한 다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건설업체와 공무원의 유착비리가 대부분 유흥업소에서의 성접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접대’와 ‘유흥’이라는 관행은 건설비리로만 끝나지 않는다. ‘버닝썬’ 게이트가, 고 장자연 씨의 죽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남성중심적인 ‘접대’, ‘유흥’ 문화는 남성중심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상품화하고, 성착취하는 성산업 문화가 우리 일상이 된다. 미투 운동을 통해 이러한 성폭력, 성희롱이 만연한 업무 환경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진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남성중심주의 접대 문화, 유흥 문화, 여성 혐오를 바탕으로 한 놀이 문화는 ‘엘시티’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리그를 너무나 오랫동안 형성해왔고, 차별과 폭력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켰다.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 성폭력 범죄는 이러한 일상적인 성차별적 환경을 토대 삼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성차별의 현실을 깨닫는 순간 매트릭스처럼 일상이 성차별로 뒤덮여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한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이러한 각성의 과정은 재난 시대에 맞닥뜨린 이 세계가 새로운 보통(뉴 노멀)의 기준을 상상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는 피해자의 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꾼다’는 피해자의 말을 기억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통념과 상식을 의심하고, 여성들이 끝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내버려두기보다 함께 각성하고, 새로운 상식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다.

“여성들이 폭력당하는 세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보통의 김지은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중에서 

1) 밤쉘(bombshell), 폭탄선언이라는 의미.

폭스 뉴스 회장 로저 에일스를 고소한 폭스TV의 앵커 이야기를 다룬 동명의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2) <청소년 25% 사회 내 ‘성차별’ 문제 심각>, 부산일보, 2020년 7월 16일자.

3) 캐슬런 배리(Kathleen Barry),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02.

4) 멜리사 팰리(Melissa Farley), 「미투 운동은 성매매를 포함해야 한다」,

Dignity: A Journal on Sexual Exploitation and Violence, 2018.



“엄마, KBS나 MBC 틀어놓고 무조건 조심하세요.” 올해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폭우나 태풍이 닥칠 때 ‘독거노인’으로 분류되는 엄마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당부였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DNA를 장착했거나 사회 적응력이 뛰어나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대열에 진입한 사람은 재난 정보를 앱과 포털 사이트로 얻는 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 지금도 2G폰을 쓰고 계신 엄마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방송이 여전히 유력한 정보원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 더욱이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가 주는 정보는 절대적이다. 생명과 안전이 걸린 재난 상황에서조차 정보 불평등으로 인해 쉽게 위협에 노출되는 계층이 있다면 이것은 괜찮은 일일까. 다시 미디어 약자가 묻는다.



7월 23일 KBS부산 뉴스9 갈무리



미디어 약자가 되기 쉬운 노인 세대



9월 7일 부산MBC유튜브채널 태풍 10호 하이선 당시 실시간 방송 갈무리

올해는 '재난의 일상화'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개인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재난의 연속이었다. 그중 코로나 19는 최강이자 최악이었다. 평소 지역언론을 감시해오던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코로나19 재난 시기 지역언론은 누구를 주목했나' 라는 주제로 모니터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사 주제와 취재원을 살펴본 결과 산업별·기업별 피해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사 비중이 제일 높았다. 상반기 내내 관광, 자동차, 항공사 등 기업 뉴스가 많았고 뒤로 갈수록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가 언급되는 비중이 증가했다. 누가 봐도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이고 노동자인데 기사의 주인공은 기업이었다. 전 세계가 사회적 약자를 주목하는 시대에도 언론은 한결같이 기업만 바라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그 속도감에 놓쳐버리는 것이 많다. 살던 대로 산다. 서울과 수도권은 당연히 중요하고 지방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곳이자 특별시민의 여행지 또는 쉼터로 여겨진다. 부산에 살아도, 제주에 살아도 서울 뉴스를 먼저 봐야 하고 내가 사는 곳의 뉴스는 한참 뒤에나 볼 수 있다. 뉴

미디어를 소비하고 적응하는 사람은 많은 정보와 편리함을 얻고 스마트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대에 둔감하고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치부되고 자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재난 정보 수집에서부터 명절 기차표 예매까지 불편은 전방위적으로 물려온다. 통신과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한 시대, 변화의 물살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차별에 휩쓸린 이가 없는지 세심하게 돌아봐야 할 때다.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 현황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 보셨겠지만...” 우리가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말이다.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면 이런 말이 누군가를 위축시킨다는 느낌을 받는다. 누

군가예겐 닿지 못하는 소식이나 콘텐츠가 있을 텐데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시민 모두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은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는 뉴스와 콘텐츠를 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정보 습득이 가장 어려운 계층, 사회적으로 가장 궁지에 몰려 있는 계층을 더 돌아보고 조명하는 지상파 방송을 기대한다. 오랜 익숙함 속에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온 크고 작은 차별을 이제는 질문하고 행동하며 하나씩 바뀌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한 스푼

## - 버터스푼

김예선 | 민주공원 홍보/ 편집장



청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나이, 직업, 전공이 모두 다른 3명의 부산 청년들이 모였다! 청년들의 일상생활부터 주거 문제까지 다루는 문화기획자들. 일상의 행복을 뜻하는 버터와 이것을 전달하는 도구인 스푼을 합쳐 행복을 전하는 '버터스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실험에 도전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단체 설명을 보고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가. 열정 가득한 젊은 남성 세 명을 떠올리지는 않았는지. 버터스푼은 세 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다. 청년이라고 하면 으레 긴장한 남성을 떠올리는 등의 크고 작은 고정관념을 없애며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여성병원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병과 성건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었던 은봉과 아이를 키우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던 유진, 성소수자와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재연이 만났다.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지역에서 여성주의 문화기획 단체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다만 부산이라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특히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이곳에서 차별과 혐오의 장막을 걷어내고 조금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멤버마다 활동 영역과 관심 분야가 다르다보니 버터스푼은 성병의 종류와 예방법 알리기 캠페인, 알아두면 쓸모있는 성건강 살롱, 성범죄에 대한 수다회, 성건강상담소 등 성교육부터 상담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정체성을 고민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버터스푼만의 장점이 된 것이다. 이런 활동 중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동료와 선배들을 만나기도 하고, 페미니즘에 관심

이 많은 시민들을 만나기도 했다.

버터스푼의 활동 중 독특한 것은 '주거다양성' 문화기획이다. 정상 4인 가족만 강요하는 사회에 다양한 주거 형태를 소개하며 문제의식을 던져보았다. 주거는 곧 삶의 형태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4인 핵가족만을 가족의 정상성으로 생각하고 비혼이나 동거, 비혼인 가족이나 비혈연 가족은 비정상적으로 생각한다. 버터스푼은 주거다양성을 통해 성소수자 문제는 물론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해 포괄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버터스푼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안 어려움이 많았으리란 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이상한 댓글'은 물론 '사근 사근한 태도', '친절한 설명'을 요구받거나 여성단체라 예민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화도 났지만 '다른 페미니즘 단체들이 겪는 일을 우리도 겪는구나' 생각하며 '언젠가 우리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꼭 하자'고 했으며 그간의 에피소드들을 전해주었다.

"부산에서 나고 자라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자주 접했어요. 내 생각을 드러냈을 때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죠. 점점 내 생각을 숨기게 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되었어요. 한두 명의 동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요. 지금은 더 이상 내 생각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느껴거든요."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가 많았어요. 주변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지' 같은 말도 많이 들죠. 버터스푼의 멤버들을 만나고 페미니즘

- ▶알아두면 쓸모있는 성건강 영상회 클리토리스 만들어보기
- ▶알아두면 쓸모있는 성건강세미나



을 접하면서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엄마라서’, ‘여자라서’가 아니라 ‘나라서’로 바뀌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다른 엄마들에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멤버 모두 각자의 본업을 하면서 버티스폰 활동을 하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공부부터 지역의 다른 페미니즘 단체를 찾아 네트워킹도 하고 새로운 기획도 하고 자체 역량 강화도 하고 싶은데 왜 이리 시간이 부족한지. 일 벌여 놓고 수습하느라 힘든데 그래도 행복하다고 한다. 후회는 하지 않는단다.

그렇다. 어떤 일들은 수습하느라 힘들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 있다. 아니 일을 벌이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이 불편하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바뀌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 ‘프로블펀러’, ‘프로예민러’가 되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도 내가 맞본 버터를 한 스푼 떠서 옆에 있는 이에게 먹여 보라 권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더욱 달콤하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들이 떠서 전해주는 한 스푼의 버터 맛이 궁금하지 않은지? 🍷



## 후원회원 홈페이지 개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또는 부설기관의 후원회원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민주공원 홈페이지(demopark.or.kr)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또는 부설기관의 기존 후원회원은 로그인을 통해 후원정보 및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후원금을 증액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바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할 수 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부설기관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후원자 정보와 납부 방법 입력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된다.



## 부산민주공원 사료관 건립 및 운영 외부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부산민주공원의 부속건물인 사료관 건립 및 운영에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외부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7월 24일(금) 14시 민주공원에서 개최하였다. 사료관 건립 예정 부지와 민주공원 시설 전반을 둘러본 후, 민주항쟁기념관 소극장에서 진행한 1차 회의에는 관련기관 실무자, 기록관리, 건축, 미술, 역사, 시민단체 분야에서 총 8분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사료관 건립과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 특히 설계 공모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회의 내용은 이후 공청회나 학술대회 등의 성과와 함께 사료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발족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에 참여하며 8월 10일 발족 기자회견과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공공성 확보와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북항 재개발 방향성 설정을 논의했다.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은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공공성을 담보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개발을 끌어내기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부산 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을 발족한다”며 “북항은 시민이 즐기는 친수 관문이어야 한다. 재개발사업에서 초고층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 등으로 북항을 채우는 것은, 부산의 소중한 자원인 북항을 낭비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지역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한미군 사령관 1387인 고발단 접수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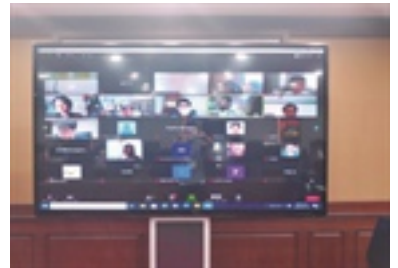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진상조사 및 추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엄중히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



난 9월 24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열었다. 부산 미세군전부대 추방대책위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구체적 위법 행위로 “1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운송·비축을 금지하는 위험한 독소를 8부두를 비롯한 국내에 반입, 운송 비축하고 2 생화학무기법상 필요한 수입·운송허가·보유신고를 하지 않고 3 감염병예방법상 필요한 반입허가·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반입”한 것이라며 “우리 법으로 미군 세균실험실을 조사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전쟁과 동아시아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과 동서대 중국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한 <한국전쟁70주년 학술회>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전쟁과 동아시아 민주주의 -한·중·일의 근현대 전쟁과 민주주의 발전 비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진행을 처음 시도하였다. 여러 지역에서 모일 예정이었던 학술회의 발제자 및 토론 참여자들은 각자의 집과 연구실에서 모니터로 학술회에 참여하였다. 발제 원고는 사전에 공유를 하여 중간 참여자들도 학술회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술회 토론 도중, 참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원고 공유와 댓글로 발언하여 무사히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학술회 이후의 행사에서는 온라인 방청객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방청객과 토론자 간의 댓글과 화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진행을 꾸려보고자 한다.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성찰과 전망』 31호 발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에서 『성찰과 전망』 3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특집기사로 “60년전 기록으로 보는 부산 지역 4월혁명의 장면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과 분단 그리고 평화”, 연재논문 “마르크스의 박사학위논문에 나타난 실천적 유물론의 맹아에 대하여”, “아만의 시대에 시란 무엇인가, 브레히트의 시편들”, 칼럼으로 “불평등을 끊어내는 작은 이야기들의 역사”, “재난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생각한다”를 실었다. 그리고 북리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왔던 이 땅의 삼순이들께 바치는 헌사 『삼순이』 는 우리 사회의 성별불평등을 다시 생각해보는 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수탁 운영 중단 안내

2010년 문을 연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은 문화예술사업단 Biki에서 중구청으로부터 수탁운영하다가 중도 포기하였다. 이후 중구청의 요청과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보수동 책방골목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 2011년 11월부터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수탁운영해 왔다. 그리고 2020년 9월 6일부터 7년 10개월의 수탁운영을 마무리하였다. 그동안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문의 demopark.or.kr | ☎ 051) 790-7400



민주공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의 코로나 19 대응 지침에 따라 임시휴관과 개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급작스러운 변동으로 민주공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아쉽게 발걸음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민주공원은 운영 지침이 변경되는 즉시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으며, 민주공원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민주공원 방문 전 운영 상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알림방에서 알려드리는 전시, 공연 등 행사도 알림과 달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민주공원 랜선모꼬지 10월 공원퀴즈왕은?

#기념관을 탐색하다

- ◆ 응모: 10월 한 달 동안
- ◆ 발표: 11월 4일(수) 오후 2시, 민주공원 홈페이지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공원 안내영상'을 보고 공원퀴즈를 풀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50명의 정답자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 권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11월 공원퀴즈 #희생을 기다리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민주공원 온라인 작은사진전

— 나의 자연빛세상 온라인 사진전

못 생명이 함께하는 세상, 생태민주주의. 민주공원이 연 온라인 작은사진전 <나의 자연 빛세상>의 온라인 사진전을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과 민주공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70명의 자연빛 사진가가 일상에서 찾은 자연빛세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공원**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 전태일 50주기 맞이 〈2020 연극 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나〉

◆ 10월 10일(토) 오후 3시, 민주공원 중극장

전태일 열사의 삶을 음악 서사극으로 재구성한 작품. 등장인물 10명은 모두 다 '전태일' 이자, 모두가 주인공이다. 각 장면에 등장하는 각각의 전태일은 독립성을 가지면서 다른 장면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태일의 정신 '전체의 일부인 나'라는 개념을 살리고 자한 것이다.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고, 다른 남이 내 일부가 되는 '分身'과 '焚身'의 운명.



## 극단 더블스테이지 어린이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지혜, 사랑, 용기의 인간의 기본 가치를 도로서, 두뇌가 없는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겁쟁 이사자 등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등장인물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등장인물들의 모험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변화시켜주는 마법은 외부가 아닌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함께 깨달아간다.

## 낭독극 〈밀다원〉

6·25전쟁으로 50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몰려든 부산 광복동에 '다방 밀다원'에 모여든 문인들의 이야기로 중구의 문화예술 발자취를 되새기고 문학 역사를 재조명한다. 예술인들이 꿀벌처럼 모여들어 실의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꿈을 얻어가는 곳 밀다원을 배경으로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들의 복잡했던 내면세계와 그 시대 부산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 두 작품 모두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Dance Project EGERO 〈비빔〉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기존의 짧은 레퍼토리들을 리메이크 작업하여 옴니버스 형태의 공연으로 재탄생시킨다.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작품을 재해석하고 각각의 레퍼토리 리메이크 작업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역량과 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

※12월 중 공연 예정



민주시민교육원 **나라한알**

www.narak.kr | ☎ 051) 463-2240



부산의 근대 시기와 도시재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강좌,

### 홍순연 박사의 부산 건축 산책

#### - 보존과 재생의 건축

- ◆ 일시 : 2020년 10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총 4강)



**IDS 민주주의사회연구소**

Institute for Democratic Society

- 문의 [www.facebook.com/groups/IDSDEMO](https://www.facebook.com/groups/IDSDEMO) | ☎ 051) 790-7482

### 민주항쟁기념 학술대회 **왜 부산에 사료관이 필요한가?**

- ◆ 일시 : 2020년 11월 6일(금) 13:30 ~ 17:00
- ◆ 장소 : 미정
- ◆ 발표 : 김인철 부산시 총괄건축가, 이수상 부산대학교 교수, 유경남 5.18연구소 연구원

### 『성찰과 전망』 제32호 출간 (11월 25일 발간 예정)

민주공원 사료관의 역할과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정정책과 향후 일자리 대응전략, 미군부대 세균전 실험, 앵겔스 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 청년세대에게 듣는다: 세대간, 성별 불평등에 대하여, 북리뷰 <최전방의 시간을 달리는 여자> 등의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19혁명에서 촛불까지, 민주주의 기록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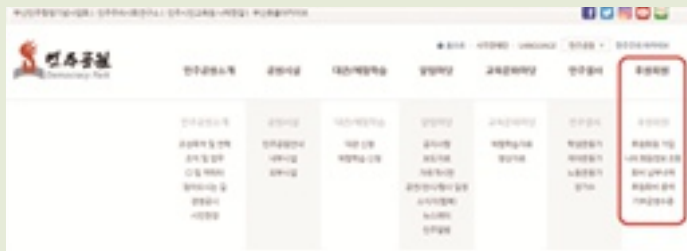
- ◆ 민주화운동 · 시민사회운동 사료를 기증받습니다.
- ◆ 수집대상 : 민주화운동 · 시민사회운동 관련 성명서, 소식지, 회의록, 일기장, 사진, 포스터, 그림, 의류 등 각종 기록물
- ◆ 기증하신 기록물은 장차 건립될 민주공원 사료관 등에 보관 · 전시되며 촛불 관련 기록물은 부산촛불아카이브에 수록됩니다.



### 〈후원회원 정보변경 & 증액 이벤트〉

후원회원님, 최근에 민주공원 홈페이지 접속해보셨나요?  
 드디어 홈페이지에도 '후원회원' 메뉴가 개설되었습니다!  
 민주공원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후원회원 메뉴에서 후원회원 가입뿐만 아니라 회원정보 조회, 회비 납부내역과 증액,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민주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정보를 수정하시거나 후원회비를 증액하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이사 전 주소나 예전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다면 정보도 변경하시고 기념품도 받아주세요~♥

- ◆ 이벤트 기간 : 2020년 10월 16일(금) ~ 26일(월), 500명 선착순
- ◆ 민주공원 홈페이지 : [www.demopark.or.kr](http://www.demopark.or.kr)
- ◆ 문의 : 051-790-7473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후원회원이 되시면,  
 회원 감사증서와 반려나무를 보내드려요.  
 반려나무 한 그루를 입양하시게 되면  
 숲이 필요한 곳에 나무가 심어집니다.  
 희망의 나무를 심어준 회원님과 함께  
 민주주의의 푸른 숲을 지켜가겠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 제29회 민주시민상 시상식

민주시민상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일시** 2020년 10월 15일(목) 오후 4시

**장소** 민주공원 큰방(중극장)  
<워라카노> 유튜브 채널 온라인 생중계

**수상자** 단체부문 부산여성단체연합  
개인부문 김평수

<워라카노>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